

# 치유 효과 입증 도시농업 가치 공유

### 농진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가

### 오늘부터 12일까지 혁신사례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식물의 공기정화 기능 공동체 활성화 교육·치유 효과로 입증된 도시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농촌진흥청은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전시분야에 '보고 먹고 즐기는 헬스케어식물이 국민생활을 건강하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식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다양한 텃밭 모형과 기능,

치유농업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 등 농업활동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한다. 혁신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해 '인진한 한국' 주제관에 방문하면 '공기정화식물', '도시텃밭' 및 '식물의 치유효과' 등 농촌진흥청의 혁신사례를 동영상과 카드뉴스로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이 혁신사례와 관련한 퀴즈를 풀고 댓글에 방문 소감 등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제공해

홍보 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개방형 박람회로 개최된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인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방방곡곡 ▲실패박람회 등 모두 5개 전시관이 운영될 계획이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계기로 농업의 가치가 단순한 생산 중심에서 농업소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농업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지역사회 동반성장 '맞손'

### 전기안전공-KB국민은행

### 주거래 금융기관 협약 체결

### 3억원 활용 지역상생 전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지역사회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발 걸음을 함께 하기로 했다.

공사는 2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KB국민은행 한상권 전무가 함께한 가운데 '지역사회 동반성장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공사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서 동반성장을 위한 자금 3억원을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운영자금 관리와 함께 자문·컨설팅 서비스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임직원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원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은, 전주 신성초서 금융교육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일 전주 신성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사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용돈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저축 계획 세우기, 합리적인 소비 찾아보기, 용돈 기입장 작성하기 등 저축 계획을 세우고 알뜰하게 소비하는 습관에 대해 교육했으며, 활동지와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1사교 금융교육과 같은 금융 분야 외에도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진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장애인 체육선수 10명 채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농수산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체육선수 10명을 채용하며 ESG 경영 가속화에 나섰다.

공사는 전남장애인체육회와의 업무협약 후속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장애인 체육선수를 직접 고용했으며, 11월 2일 나주 본사에서 사랑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채용한 선수는 탄발 등 5개 종목 10명으로, 장애가 유망한 신인부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까지 다양하게 꾸려졌다.

김춘진 사장은 "채용된 선수들이 안정적인 생활여건에서 운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착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대학교는 2일 전주대 대학본관에서 군산시, LX 공간정보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빈집문제 해결에 나섰다.

## 빈집 정책 지원 연구성과 창출 협업

### 전주대-군산시-LX 공간정보연구원,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일 전주대 대학본관에서 군산시(시장 강임준), LX 공간정보연구원(원장 손종영)과 업무협약을 체결, 빈집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 류두현 부총장, 군산시 안전건설국 김석근 국장, LX 공간정보연구원 손종영 원장 등 세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빈집 등 지역문제해결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정보공유, 자문 및 기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류두현 부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군산시의 빈집정보제공과 이를 이용한 전주대학교의 연구로 전북지역 내 빈집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산학협력 R&D 인공지능 기반 빈집추정 및 가치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개공-도내 유관기관, 지역발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북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개발공사(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내 8개 유관기관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전북개발공사는 2일 도내 8개 기관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정철모 전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현웅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학권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기선 전북도지원봉사센터장, 김의숙 전북도청소년소녀가장지원센터장 그리고 양근의 전북테크노파크원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및 컨설팅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상생협력사업 발



굴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북개발공사는 이날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부처협업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하는 내용과 폭을 넓혀가고 우리 지역이 담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내실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환 사장은 "지역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사회공헌을 위해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일 진안군과 농촌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농촌협약 성공 추진 '맞손'

### 농어촌공 전북-진안군

### 상호협력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지난 1일 진안군과 농촌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안군이 2021년 농촌협약 대상사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진안군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진안군 전 지역에 불편없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마을만들기 1번지'인 진안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농촌협약 제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발전방향을 세우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거쳐 지자체가 설정한 생활권 단위 사업을 패키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진안군은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내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보완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365 자립생활권 네트워크, 진안!이란 미래 비전을 위해 향후 5년간 423억원을 자립생활권 구축, 협동자생 조직개발 및 육성, 치유재생 특화산업 육성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양정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농촌협약을 통해 진안군 전 지역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립생활권으로 성장시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행복하고, 살기좋은 진안군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방문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2일 경기 고양시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방문해 육종온실 등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연구자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사료작물 재배 어렵다면... '사료용 피' 활용하세요

### 재배기간 2~3개월 가축급여 안정성 문제 'NO'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가뭄, 폭우, 늦추위 등 이상 기상으로 정상적인 사료작물 재배가 어려울 때 긴급 풀사료 작물로 '사료용 피'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긴급 풀사료 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기간이 짧아야 하고 생산성과 가축 급여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료용 피는 주로 5~6월에 파종하며, 조생종과 만생종으로 나뉜다. 척박하고 습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

사료용 피의 재배기간, 생산성,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긴급 풀사료 작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기간은 약 2~3개월로 조생종은 평균 47일, 만생종은 평균 90일이 소요됐다. 사료용 옥수수(평균 120일)보다 1~2개월가량 짧았다.

여름 사료작물을 가축에 급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질산중독에 대한 안전성도 나타났다.

사료용 피의 질산태질소(NO3-N) 함량은 생육이 진행될수록 점차 낮아져서 수확기에는 88.6ppm(기준량 시비할 때)으로 가축 급여 안전 범위 기준(1,000ppm 이하)을 크게 밑돌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초지사료과장은 "짧은 기간 이상으로 풀사료 생산과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료용 피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간접지에서 풀사료를 재배하는 황병룡 농장주(전라북도 김제시)는 "사료용 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줄기가 가늘어 닭근 먹이로 발효가 잘돼 한우농가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겨울 사료작물과 연계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속기의 품종이 개발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 농식품부, 법률·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농어가의 환경 친화적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 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0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2021년 31억원(국비 기준)에서 69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하였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돼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

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0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